
		보 도 자 료		수도권매립지 종료
		배포일자	2021년 11월 23일(화) 총 2매	 환경특별시 인천
담당 부서	주택정책과	담 당 자	• 주택정책팀장 정성균 ☎440-4731 • 담당자 최한주 ☎440-4732	
사진		<input checked="" type="checkbox"/> 없음 <input type="checkbox"/> 있음	참고자료	<input checked="" type="checkbox"/> 없음 <input type="checkbox"/> 있음
보 도 시 점		배포 즉시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		

서구 가정동 아파트 5개 단지
‘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’ 후보지로 선정
 - 건축규제 및 사업요건 완화, 빠른 인허가 절차 기대 -
 - 인천시, 관계기관 협의 거쳐 주민 숙원 지원할 것 -

인천 서구 가정동에 위치한 5개 아파트 단지가 소규모주택정비관리지역 후보지로 선정됐다.

인천광역시(시장 박남춘)는 23일 국토교통부가 ‘3080+ 대도시권 주택 공급방안’을 통해 도입된 ‘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’ 2차 후보지 공모 결과 해당지역이 선정됐다고 밝혔다.

선정된 후보지인 가정동 5개 단지(동우1·2차, 한성, 현광, 성광 1,134세대)는 87년~92년에 준공된 30년 이상의 노후화된 공동주택 단지로 루원시티 개발 당시 제외돼 섬처럼 고립됐다.

입주민들은 그간 국토교통부·인천시·서구청에 민원을 접수하고, ‘민간통합공모(7.23.~8.31.)’에 신청서를 제출하는 등 낙후된 실정을 알려왔으며, 인천시가 국토교통부·서구청과 더불어 다각도로 가능

개발방식을 협의한 끝에 마침내 관리지역 후보지로 선정됐다.

관리지역으로 지정되면 용도지역 상향(2종→3종), 대지경계선 이격 거리 완화, 용적률 특례 등 건축규제와 사업요건이 완화되고 인허가 절차도 빨라지게 된다.

‘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’은 대규모 정비가 어려운 노후 저층주거지를 관리지역으로 지정하는 소규모 정비 사업으로서 가로주택정비사업의 경우 2만㎡까지 구역이 확대되고, 연접한 곳에서는 통합개발도 가능하다.

정이섭 주택정책과장은 “인천시는 주민 간 긴밀한 소통과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주민들의 숙원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”고 말했다.

한편, 서구 가정동 5개 단지의 소규모주택정비관리지역 후보지 선정은 지난 4월 부평 십정동 희망공원 서측지역 지정에 이어 두 번째로 이뤄졌다.